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5:16)

어려운 시기에 AW 공동체 가족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곳은 전투를 치르는 것 같던 코로나가 8월 중순부터는 급격하게 약화되고 확진자 수도 줄었습니다. 자넷 집사님께서 송금하시느라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귀한 헌금 \$2000 잘 받았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7~8월 [코비팀] 사역을 통하여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중환자들의 치유

오쉬에서 코로나로 투병했던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모두 완치 되었습니다! 치유 받은 환자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 모임들 가운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 7월4일부터 현재까지 [코빗팀] 주요활동



산소발생기 사역을 통해서 호흡이 곤란하여 생명이 위험했던 100여 명이 넘는 환자들을 살림



[코로나세미나]를 열고 9개 지역 시골 사역자들에게 산소발생기를 제공하고 복음 사역을 도움

치료비가 없는 50여명의 환자들에게 CT촬영과 게파린(혈액을 묽게 해주는 주사약)등 약품을 제공



- 케어 해주는 사람이 없는 환자들에게 음식을

제공

- 3개병원 의료팀에게 식사를 제공
- 환자 가정에 식사 제공, 방역소독, 청소 해줌
- 두려움에 떠는 환자와 가정을 위해 현재도 전화 상담과 중보기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 코로나 이야기

레냐(Леня 고려인, 77세, 불신자)씨는 독거노인으로 호흡곤란이 극심하여 위중한 중에 이웃인 엘료나(Елена 38세)가 [코빗팀]에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엘료나는 러시아인으로서 저널리스트인데 그 동안 레냐를 돌보아 오다가 생명이 위험하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Instagram에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러시아에 있던 아냐(Аня)의 여동생이 그 내용을

보고 오쉬에 있는 아냐에게 전화했고, 아냐가 [코빗팀]을 소개하여 저희가 연락을 받게 된 것이지요. 아냐는 1달전 코로나로 코마상태에 들어갔다가 [코빗팀]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역자입니다.



레냐아저씨는 3주동안 코빗팀의 산소발생기 사역과 약품과 식사를 제공하는 등 정성 어린 돌봄을 통하여 극적으로 회생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방 한칸에 바퀴벌레가 너무나도 많아서 코빗팀원들이 3일간 소독하고 청소를 해드려서 이제 건강한 몸으로 깨끗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레냐아저씨의 생신이라서 코빗팀 전원이 식당에서 생일축하 파티를 해드렸지요. 아무 가족도 없이 30

년을 외롭게 살아 온 레냐아저씨는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에 많은 가족을 얻었다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코비트팀원들도 주께서 귀한 열매를 주셔서 큰 위로를 얻고 감사하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 오쉬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잘라라뵈' 코로나 이야기 (칼다르칸 간증)

잘라라뵈 [하늘문교회] 사역자인 '아나라'는 아주 심하게 코로나로 아픈 중에도 성도들과 매일 온라인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쉬신학교 제자인 '아나라'와 '칼다르칸'은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식재료들을 구입하여 500여 가정을 방문하여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중 100가정이 팀을 쫓아내지 않고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루는 무슬림 목사인 몰도가 도움을 요청하였

는데 걷지 못하는 여인을 데리고 왔대요. 칼다르칸 팀이 몰도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여인이 걷게 되었고, 몰도가 “너희들 신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라면서 예수님을 영접 하였습니다. 칼다르칸 팀은 너무 놀랍고도 기뻐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하면서 서로를 꼬집으면서 기쁨으로 돌아왔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이제 하늘문교회에서는 [코빗팀]에서 지원받은 산소발생기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라라бат은 이슬람이 아주 강한 지역인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다른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많은데 지면으로 다 나눌 수가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코로나 앞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빛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주

님은 일하십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저희부부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2. 코빗팀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3. 침술치료는 로싸센타 리모델링이 완성될 때까지 시골에 찾아가 환자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4. 사모들 기도 모임 통해 기도제단이 세워지고 가정이 변화 되도록
5. 제자인 아이다(35세)가 유방암 수술 후 고통 중에 항암치료 중입니다. 잘 감당하고 치유를 위해서
6. 청소년 성경암송반을 운영하려 합니다. 지혜 주시길

감사드리며,

오쉬에서 김형근, 이인숙 올림